

## 무분별한 운임덤핑 자제해야

최근 동남아지역 LCL Co-loading 운임덤핑이 일부업체를 중심으로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운임으로써 대부분의 복합운송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량화물(LCL) 혼재(Consolidation)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국제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수출입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하여 화물운송 수주를 위

해 적정이윤을 밑도는 운임덤핑등 과당경쟁으로 우리 복운업계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수출입화물의 운임은 반드시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외상거래 및 덤핑운임 제공은 업계가 공멸하는 길로서 업계 영업질서가 확립될수 있도록 운임덤핑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전화원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 수입혼재항공화물 THC철회 요청

우리 협회는 MAWB단위 수입Consol 화물에 대한 THC징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26일 대한항공에 요청했다.

수입혼재항공화물을 MAWB단위로 인도시 항공사에서 별도의 Break Down등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다른 국적사에서 수입 Consol화물의 MAWB단위 인도시 THC를 받지 않고 있을뿐 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에 자체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적사인 Federal Express에서도 THC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김포시대에서 인천국제공

항시대로 동북아의 Hub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서비스요금을 신설하여 포워드에게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11월 1일 회신을 통하여 수입혼재화물 THC징수건은 타당하며, 현행 관세법에 기준하여 HAWB단위의 배정장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THC부과없이 MAWB단위로 포워드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 컨테이너세 징수기간연장 반대의견제출

우리 협회에서는 현재 부산시가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해 10월 23일 건교부에 건의했다.

동 건의내용은 부산시가 부산항만 배후도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부과하기로 한 컨테이너세의 징수와 관련 당초 목표액인 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므로 2002년부터는 폐지하

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방세법에 컨테이너세 징수근거 규정이 있어 현재 이를 부과하고 있는 부산항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부과할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컨테이너세는 지방세법 제253조 내지 260조(제4장 목적세, 제4절 지역개발세)의 규정에 의거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광역시·도)가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50/10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을 지역개발세 명목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3개 광역시·도(부산, 울산, 경남)에서 도입중이며, 부산시에서만 부과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 하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산광

역시에서만 부과하고 있는 목적세로서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으며, 도로이용자의 일부인 컨테이너 하주에게만 건설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복합운송업체(포워드)는 컨테이너 이용자인 수출입 하주로부터 컨테이너세를 대납 받아 이를 다시 해상운송사업자(선박회사)에 대납하는 절차를 겪음으로써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항만)별 컨테이너세 부과현황

자치단체	부과기간	부과세율	비 고
부산광역시	92.1 ~ 01. 12	TEU당 20,000원	2001년말까지 한시적 부과
인천광역시	폐 지	"	2001년부터 폐지
울산광역시	유 보 중	TEU당 15,000원	2002년말까지 부과유보
경남(마산)	유 보 중	"	2003년말까지 부과유보

※ 인 천 : 2001년부터 컨테이너세 폐지 결정

경남(마산) : 2001년부터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2003년까지 3년간 부과 유보

**2001년 FIATA 세계총회 멕시코 칸쿤에서 열려**  
**- 김 정민 협회장, FIATA 부회장에 재선 -**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열린 2001 FIATA Cancun총회에서 우리 협회(KIFFA) 회장이 FIATA 부회장에 재선임됐다.

이로써 향후 2년간 세계복합운송업계 주요정책입안 결정에 참여할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FIATA 차기 회장에는 이탈리아의 Aldo Da Ros가 선임됐으며 포워드산업의 재정, 향후정책, 운영문제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각분과 자문기구별 회의의 주요내용은 △홍보분과자문기구회의 - FIATA정책 홍보를 위한 Int'l

Press육성방안, FIATA Web site필요사항등 협의 △법률문제자문기구회의 - FIATA Legal Handbook내용보완, 미 해상운송법(OSRA 1998)의 개정방향 소개, Montreal Protocol과 Warsaw Convention의 상이점 협의, 국제 표준판례집 제정 검토, 새로운 해상운송물품운송조약 소개등 △항공분과회의 - 2001본부회의 회의록승인, Cargo Agency Programme협의, 라틴아메리카 항공시장의 현황등 △아·태지역 정회원회의 - 2001본부회의 회의록승인, 각국 교육프로그램과 IATA/FIATA프로그램과의 상이점, 호주 통관협회의

FIATA가입에 관한 사항등 △ 직업훈련자문기구 회의 - 각국가별 교육실시현황, Young Freight Forwarders Award수상자 발표등 △통관촉진분과회의 - 인터넷에 의한 Bolero Transport활성

화방안등 △복합운송분과회의 - 철도운송 소위원회활동 내용보고, 미 테러사태로 인한 미국수출입화물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도로운송 소위원회 활동내용보고 등이 진행됐다.

## 연수교육과정 · 실무교육강화

### - 8개과정 총18회, 포워딩실무 통신영어교육 개설예정 -

복합운송업계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2002년도 우리 협회의 연구교육이 총8개 과정으로 18회 실시되며, 포워딩실무 통신영어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우리 협회가 확정된 올해 교육과정은 해상포워딩 단과반(20시간) 및 기초반(60시간), 항공포워딩단과반(20시간) 및 기초반(60시간), 복합운송중급반(72시간), 항공위험품취급반(20시간), 해상포워딩 부산교육(30시간)등 7개과정이며 포워딩실무 통신영어교육 및 C/S 예절교육 과정도 추가로 개설된다.

2002년 2월 18일 처음 실시되는 해상포워딩단과반 과정을 시작으로 총18회 실시할 예정이며 단과반교육으로 해상포워딩 4회, 항공포워딩 4회, 항공위험품취급 1회, 포워딩실무 통신영어 2회 및 해상포워딩 부산교육 1회 등이고 기초반교육과정으로 해상포워딩 3회 및 항공포워딩 2회, 중급반 과정은 1회 실시된다.(20면 자료참조)

한편 지난해 연수교육은 총 5개과정에 14회 실시하였으며, 626명이 수강하여 606명이 수료하였는데 1회 평균 43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대승항운 · 천지해운, 국무총리상 수상

### - 2001 물류대상 시상식에서 -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물류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제9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대승항운의 채명기 사장과 천지해운의 남기영 사장이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1월 2일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01년도 물류대상 시상식에서 대승항운의 채명기 사장은 포워딩과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포워딩 산업의 업무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Cargo Tracing System, E-Logis System등 포워딩 System을 개발하고 XML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운임

정산 자동화시스템 도입등 업무자동화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와함께 천지해운의 남기영 사장은 수출입화물 일관수송체계 확립으로 국제교역 증진과 환적화물 유치로 부산항의 항만수입증대 및 외화 획득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편, 동시상식외에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44개 물류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되었다.

**복운업계, 물류산업시찰**  
- 10월 26일 광양항에 이어 11월 8일 평택항 -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26일 김정민 협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임직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청의 협조로 광양제철소, 광양항 및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광양항은 대형컨테이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및 하역이 가능한 수심 확보(14-15m)는 물론 부두배후에 200만평의 광활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자연방파제로 둘러싸여 있어 정온수역을 유지함으로써 기상악화로 인한 연간작업 불가능일수가 20일(부산항 35일)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속도로·철도등 내륙운송면에서 호남권 및 대전이북 권역의 화주는 육상운송면에서, 환적화물의 발생지로 볼 수 있는 중국항만과의 운송거리가 짧은 해상운송 거리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11월 8일(목) 김정민 협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임직원 등 총79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청, 평택항, 삼성전자 수원공장 등을 견학하였다. 최근 물류 중심지로서 활발한 성장을 하고 있는 평택항 견학은 평택시청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평택시청에서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한국복합운송협회 임·직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항의 경쟁력과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평택항 개발계획과 항만시설 및 운영 현황, 평택항 이용시의 이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에서는 평택항의 이점과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평택항의 주요 이점으로는 북중국과의 최단거리인 점과 그로 인한 해상운송비의 절감, 신속한 물류수송, 해일·태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상조건, 수도권과 중부권에 위치하여 내륙운송비 절감, 고속도로와 국도의 노선요충지, 588만평의 항만배후지 확보 등이 꼽혔고, 문제점으로는 벌크 포크리프트와 소량화물을 위한 장비가 없어 미니멈차지를 물고 대여하는 점, 채선이 없고 차고지가 따로 없어 운송비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점, Dirty Cargo를 취급하지 않고 Clean Cargo만 취급하는 제한성 등이 꼽혔다.

오후에는 평택항을 둘러 동부두와 서부두 현장을 견학하였다. 현재 서부두에는 천평의 창고가 건설 중이며, 동부두에는 내년 3월 완공예정인 천5백평의 창고가 건설중에 있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한편, 항만견학을 끝내고 마지막 방문지인 삼성전자 수원공장에 들러 삼성전자단지내의 홍보관에서 전시된 제품견학과 홍보영화를 관람하였다.

**2002학년도 직장인 물류대학 신입생모집**  
- 오산대학과 산학협동 -

우리 협회는 우수한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동 차원에서 오산대학(학장 김연수)의 협조하에 2002학년도 직장인 물류대학의 신입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집하고 있다.

본 직장인 물류대학은 교육의 전문화와 평생교

육의 지향에 따라 전문직종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직장인만을 추천받아 전학기동안 저렴한 교육비로 정규대학 졸업생으로 배출하는 제도로써 복합운송업계 종사자들에게 면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대학의 학사관리는 오산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졸업시 동 대학 학력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5인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 △산업체에서 통산 6개월이상 근무경력자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류 등을 갖추어 2월

19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본 대학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장소를 오산대학 서울교육장(구로구 구로3동 188-25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입학생 전원에게는 수업료의 20%의 장학금을 비롯하여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등 복합운송업체 소속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제5회 회장기쟁탈 볼링대회 열려**  
- 우승 : 고려해운항공, 준우승 : 에이엔씨인터내셔널 -



제5회 협회회장기쟁탈 회원사 친선 볼링대회가 지난 10월 27일 세종볼링장에서 개최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한 동대회는 금년이 5회째를 맞이한 대회로서 12개사 36명이 3인(남 2명, 여 1

명) 1조로 참가한 가운데 고려해운항공(대표 : 강경주)이 단체우승을 차지하여 회장기, 우승트로피 및 부상등이 주어졌다.

또한, 단체준우승에는 에이엔씨인터내셔널(대표 : 이호우), 3위에는 메인프레이트인터내셔널(대표 : 현동수)이 입상하였으며 남녀 개인상은 퀴네앤드나겔코리아의 정탁용, 대동종합물류의 김경선이 차지하여 대한항공 협찬의 국내선 왕복항공권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코리아취빙가제트, 카고저널, 카고뉴스, 대한항공, KNET, DHL, 현대해상 화재보험 및 동양화재보험에서 협찬하여 입상상품 및 행운추첨에 의해 대다수의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상품이 제공됐다.

**입상자 현황**

구 분	순 위	회 사 명	입상자명	비 고
단체상	우 승	고려해운항공	오범식, 추동수, 신민희	
	준우승	에이엔씨인터내셔널	문범식, 차병진, 강은선	
	3위	메인프레이트인터내셔널	조병훈, 현동수, 손영신	
개인상	우승(남)	퀴네앤드나겔코리아	정탁용	
	우승(여)	대동종합물류	김경선	
	준우승(남)	일양익스프레스	조지현	
	준우승(여)	일양익스프레스	신진숙	
인기상		새한종합물류	이동근	
행운상		에이엔씨인터내셔널	차병진	
추첨 행운상			18명	

**협회 정관개정안 서면의결**  
**- 고용보험의 교육비 지원길 열러 -**

고용보험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정관개정(안)이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이 2001년 7월 30일 개정되어 동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또는 훈련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개인등이 동법 제2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직업훈련교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원 등록을 한 후에 훈련과정을 지정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고

용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11월과 12월 교육생은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 협회는 본교육과정을 다시 직능과정으로 지정받아 고용보험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정관개정안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합운송관련 교육을 위한 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말까지 우리 복합운송업체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4,000만원에 달했다.

**정 관 개 정 ( 안 )**

현 행	개 정(안)
제4조(업무)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제4조(업무)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1. (좌동)
2. 복합운송주선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통계의 작성, 관리와 업무자료의 발간에 관한 사항	2. (좌동)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 설)	3. (좌동)
4.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u>복합운송 관련 교육을 위한 복합운송학원 운영 사업</u>
5. 국제관련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5. (좌동)
6.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6. (좌동)
7.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사업	7. (좌동)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6호에 부수되는 사업
	9. (좌동)